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전남도, 4월19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야간산불 신속대응반 운영

전남도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일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의 46%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했다. 특히 대형산불이었던 2023년 순천 송광 산불(188ha)과 함평 대동 산불(681ha)도 4월 3일 같은 날 발생해 큰 피해를 남겼다.

올해는 봄철 건조기와 함께 6·3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오후와 일몰 시간대에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 감시원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집중 배치하고, 야간산불에 대비해 신속대응반 28개 조 179명을 편성해 밤 10시까지 근무하도록 운영한다.

또한 산불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백 배송원이나 택시 기사 등 전남 지역 생활권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인력으로 구성된 '전남 산에(山愛) 감시원'을 명예 산불 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 감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



용 가구와 태양광 발전시설, 주요 산림지역 등에 대한 점검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소방·경찰·군부대·산림조합 등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전담도 입차 헬기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산림청 진화 헬기와 소방 인력으로 신속히 투입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말과 휴일에는 전남도 환경산림국 6개 부서 90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영농 부산물과 농산 폐기

물 소각 등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화된 과태료와 벌칙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

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산행 시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산 부산물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141건(3천 190만 원)이며, 올해는 1월 현재까지 8건(189만 원)이다. /염성호 기자

북구, 중소기업 맞춤형 3종 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경영 부담 감소 및 경쟁력 강화 목적

최근 고유가·고환율 등 대외 경제 불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사업장 환경개선부터 온라인 판로 확대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작업 안전·환경개선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3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 내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북구 소재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숙사는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에게 제공 중인 주거시설이어야 한다.

'작업 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 위험 요소 제거 및 안전설비 확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

이 골자인 사업이다. 사업자등록증 기준 3년 이상 북구에 위치하면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지난해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인 제조업 관련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전후로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실시하며 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된 후 지원 적합 결정이 나면 기업당 최대 750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SNS 체험단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 힘을 실는 사업이다.

북구에서 생활·미용·보건·식품 등 일반 소비재를 생산 또는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별로 배정된 20여 명의 체험단이 제품 사용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수의 SNS 채널에 게시해 홍보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북구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중소기업지원과(☎062-410-6371, 8481)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원 기업 결정 시 북구 이달의 기업 선정 이력이 있는 업체에는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송현근 기자

서구, 체계적 가로수 관리 추진

단계별 의사결정으로 합리적 관리 체계 구축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광주 자치구 최초로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서구는 가로수 조성부터 유지관리, 이식·제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가로수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가로수 처리 과정에 초저 여부, 이식 가능성, 제거 필요성 순으로 판단하는 단계적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식 가능성과 제거 필요성에 대한 세부 기준도 체계화해 개발사업과 도로 정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경목 가로수 처리 시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영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이식 수목 표찰 관리 제도를 도입해 이식 이후 관리와 민원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배전선로 지장 가로수 가지 치기 기준을 정비하고 가로수 훼손 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정경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과 보행 환경을 지탱하는 중요한 생활 녹지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가로수 관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에서 운영하는 비만·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인 '건강 올리GO·체중 내리GO' 및 '오병 통치교실'이 참가자들의 건강지표를 크게 개선하면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건강 올리GO·체중 내리GO는 비만 탈출을 위한 집중 관리 프로그램이다.

주민 80명은 지난해 상반기 4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상반기와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하반기 동안 매주 3차례씩 비만 탈출을 위한 운동에 참여했다.

운동 효과는 대단했다. 먼저 참가자의 체지방률은 32.6%에서 31.5%로 낮아졌고, 허리둘레 역시 84.45

광주 남구, 비만·대사증후군 프로그램 '효과 탁월'

운동 참가자 살 빠지고 근력·지구력 늘어

cm에서 81.05cm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오병 통치교실은 요가와 근력 운동, 영양 관리를 통해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 84명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6월 25일 및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2회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전, 사후 검사 결과 공복혈당부터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혈압까지 건강 위험 요인 5가지 가운데 1가

지 이상 개선 효과가 나타난 비율은 56%였고, 5가지 지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의 체지방률이 감소하고, 허리둘레 및 혈압과 공복혈당 등 대사증후군 관련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병행한 경우 건강 개선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6

월 15일까지 상반기 건강 올리GO·체중 내리GO 및 오병 통치교실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20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45명씩이다.

비만·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남구청 5층 보건소 운동처방실을 방문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건축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정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외벽 청소

태양광 패널 청소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서비스 분야 및 장점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 대상 : 아파트(준공청소/관리, 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거래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유리창 드론 청소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발전소·설비 청소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변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공장 외벽 청소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먼지, 오염을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태양광 패널 청소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 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사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유한드론솔루션